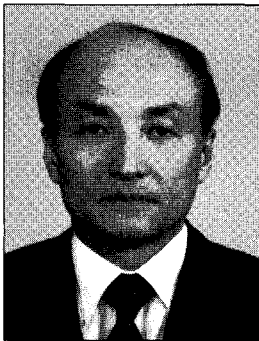


# 세계 기업으로의 성장 주력

## 국내 알루미늄 업계 선도



◀ 김두봉  
롯데알루미늄(주) 대표이사

롯데알루미늄(주)은 1966년 11월 동방아루미공업(주)으로 설립돼 3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용 알루미늄, 연포장재 및 생활용품 등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 만족을 꾀하고 있다.

1968년 서울 압연공장 및 인쇄·가공공장 준공과 함께 국내 최초로 7 $\mu$  알루미늄박을 선보인 바 있으며 1980년에는 롯데알루미늄(주)으로 상호변경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롯데알루미늄은 상호변경을 통해 알루미늄박 제조와 인쇄·가공 연포장 전문업체로 이미지 부각을 시도하면서 알루미늄 업계에 선두로 자리를 굳혀갔다.

또한 롯데알루미늄은 안산 인쇄·가공공장과 안

산 압연공장 준공 및 증설을 통해 1991년 매출 1,000천억원을 달성했다.

롯데알루미늄은 이러한 기반을 발판으로 더욱더 부응해 음료용 금속캔과 PET병 사업에 진출한 바 있으며 제1회 품질경영 100선 선정과 제31회 수출의날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1995년에는 업계 최초로 ISO 9002를 획득한 바 있으며 2000년 4월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인 ISO 14001을 획득해 환경 중시 경영을 실현해 오고 있다.

롯데알루미늄은 현재 본사에 위치한 알미늄 사업부와 가공사업부, 제판사업부 총 3개의 사업부 나뉘어 있다.

알미늄 사업부는 1968년 국내에 7 $\mu$  알루미늄박을 선보인 이후 현재는 5 $\mu$ 의 첨단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으며 고품질화된 각종 연포장재 박과 AL-SHEET 및 PP-CAP, 전성용 피복재, 전기·전자 부품용 박, 냉동·공조기용 FIN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가공사업부는 인쇄결점 자동감지를 위한 Printed Meb Inspection System, Stiffness Tester, Ink Rub Tester 등 품질관리 장비 및 자



▲ 롯데알미늄(주) 본사 전경

동제판시스템인 HELIO 고속제판기, 진공증착기 등의 설비를 갖춰 제과·빙과류 포장재와 약·식품, 담배, 낙농품, 차류, 산업용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제판사업부는 1994년 2Piece CAN을 시작으로 소재투입(COIL)에서부터 제품의 포장까지 전 공정에 필요한 최신 생산설비(D.I.LINE)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9년 3월부터는 2Piece Steel Stubby CAN Line을 가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 주스, 건강보조음료 용으로 사용되는 PET병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롯데알미늄은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국내 포장재 산업을 리드해 나가며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종합포장업체로 발돋움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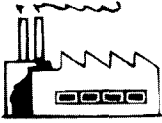
### 고객 만족을 통한 종합포장회사로

롯데알미늄은 그간의 전통 만큼이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업계를 선도해 신제품 개발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롯데알미늄은 지난 1999년 포항종합제철(주)과 공동으로 '맥주캔 스틸화'를 연구개발해 4년여만에 국내 최초로 맥주캔을 스틸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기존 알루미늄은 소재 전량을 수입해야 했다. 그러나 스틸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롯데알미늄 이상호 제판연구팀 차장은 "스틸캔은 알루미늄캔에 비해 강도가 우수한 특성 때문에



▲ 롯데알미늄(주)이 생산하는 각종 포장재 및 용기

Handing과정에서 유리하며 캔 코스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용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틸캔을 맥주용기로 적용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거의 보완했으며 특히 내용물 보존성 측면에서의 품질 수준은 알미늄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알미늄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소비자들이 음료캔을 구입해 시음할 경우 일반적으로 오픈시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

현재 보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음료캔은 거의 다 Stay On Tab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캔 윗부분의 판넬과 손잡이 사이의 공간이 좁아 오픈이 어려웠고 손톱이 부러지거나 상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롯데알미늄은 고객 불만을 해소코자 (주)봉정캔텍과 공동으로 문제점 보완을 위한 연구개발을 착수, 2002년 5월 PUSHPLUS캔을 선보였다.

PUSHPLUS캔은 기존 캔 손잡이 내부에 반구형의 볼록한 푸시 버튼(Push Button)을 채택하여 이 버튼을 누르면 금속의 탄성에 의해 볼록한 면이 오목한 형상으로 바뀌어 손잡이를 들어 올리게 된다.

이에 캔 윗 부분의 판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 사용자가 캔을 손쉽게 오픈할 수 있다.

PUSHPLUS캔은 지난 7월 롯데칠성음료의 커피음료 레쓰비에 적용됐으며 세계 캔 박람회인 ‘CANNEX 2000)에서 Ends, Caps and Closure부분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롯데알미늄(주)이 개발한 맥주용 스틸 캔 제품

### 세계 기업으로의 성장

롯데알미늄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자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을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여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내부적인 안정이다. 이에 롯데알미늄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사합동 워크샵 실시와 영업전략화, 여사원 핵심역량 개발 과정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롯데알미늄은 새로운 사명으로 바꾸고 세계 기업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

롯데알미늄은 공정성, 공평성, 상호발전, 법령준수 등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공급자 선정에 있어서 경쟁에 의한 품질 우위성과 가격 경쟁력, 정확한 납기는 물론 발주 사이트를 통해 공급자와 당사간에 상호 협력을 가능케 하고 안정성을 바탕으로 win-win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LG전자, 대우캐리어, 담배인삼공사, 삼화왕관, 등 400여개의 튼튼한 거래선을 갖추고 있는 롯데알미늄은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효율적인 재투자자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소비자 욕구에 부합되는 독창적인 기술 개발은 국내 알루미늄 업계 선두주자로서 자리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롯데알미늄이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며 그 행보에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